



# 정원 및 화단용 범부채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Flower Bed of  
*Belamcanda chinensis* native to Korea.



## 송 정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http://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범부채는 같은 붓꽃과 식물이긴 하지만 붓꽃이나 꽃창포보다 잎이 훨씬 넓으며 모양이 부채실을 닮아 시원하게 느껴진다. 화단용으로는 제법 이용되고 있지만 꽃 모양이 좋아 꽃대를 잘라서 꽂꽂이용으로 이용해도 괜찮을 듯 싶다. 범부채(*Belamcanda chinensis* Dc.)는 영명이 'Blackberry lily'이며 잎이나 꽃을 관상하는 숙근 다년성의 식물로써, 한국, 일본, 중국, 소련, 인도 등지에서 자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감상 전국의 산야나 백령도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자생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농가에서 흔히 재배되고 있다.

## 1. 생리생태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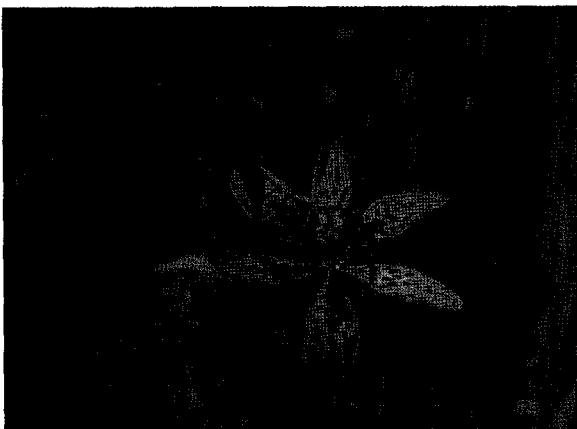
범부채는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해 전국에서 재배 가능한 전형적인 온대성 숙근이다. 종자 및 포기나누기로 증식된다. 종자는 특별히 휴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꽃은 명조간에서 발아가 촉진된다. 양지성 식물이다. 번식력이 좋아 정원에 심어두면 쉽게 포기가 불어난다. 한 여름철 황적색 바탕에 짙은 흑자색 반점이 있는 꽃도 화려하지만 잎이 넓고 모양이 좋아 연중 관상이 가능하다. 사간(射干)이라 하여 뿌리줄기를 약용으로 쓰기도 한다. 키는 50~100cm 정도 자라며

뿌리줄기는 짧고 옆으로 뻗으며, 잎은 서로 마주 난다. 잎은 좌우로 납작하게 2줄로 부채살 모양으로 펴져서 자란다. 꽃은 직경이 5~6cm로 줄기 끝과 가지 끝이 1~2회 갈라져서 한 곳에서 몇 개씩 나오는데, 밑에 4~5개의 포가 있다. 열매는 타원형의 삭과(蒴果)로 길이는 3cm정도이며 종자는 검은 색에 반짝반짝한 윤기가 난다.

## 2. 재배기술

### 가. 생육환경

일반적으로 토질은 가리지 않는 편이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더 잘 자란다. 전국의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16~30°C에서 잘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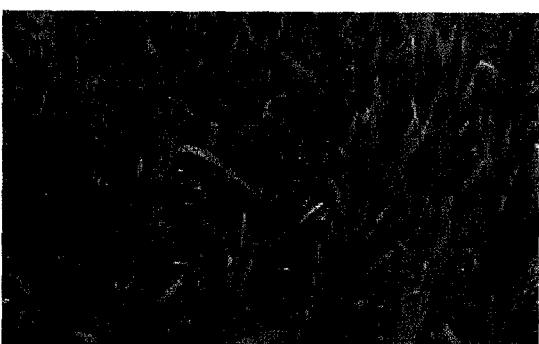
▲ 범부채꽃



▲ 범부채개화주



▲ 범부채식재전경



▲ 범부채포트묘



▲ 범부채플리그묘

## 나. 번식

종자 파종 또는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 종자 수명은 2~3년 정도이다. 10a당 2~3t 정도의 종자를 흩어뿌림 한다. 종자는 0.5cm 정도 흙덮기를 한다. 곁흙이 마르지 않도록 짚 같은 것을 덮어주고 그 위에 물을 흡뻑 뿌려주고 증발되지 않도록 싹이 틀 때까지 해가림을 해주는 것이 좋다. 파종 전에 종자를 물에 48~72시간 정도 담갔다가 파종하면 발아율이 높으며 또한 GA 100mg/l에 12시간 정도 담가두었다 파종하면 싹이 더 잘 나온다. 발아조건으로 광은 암상태 보다는 명상태가 더 좋으며, 온도는 20~25°C가 적당하다. 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플리그판이나 포트에 가식하여 육묘한다. 처음부터 플리그판에 종자를 뿌리고 육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발아율이 다소 낮아질 것에 대비해 구멍 당 2~3립씩 파종하는 것이 좋다.

## 다. 정식 및 관리

종자를 뿌린 실생묘는 1년 정도 육묘한 다음 11월경 또는 새순이 올라오기 직전인 3월 상순경에 심는 것이 좋으며, 포기나누기 한 것은 즉시 심는다. 심는 간격은 20×25cm 정도로 하며 뿐리만 묻힐 정도로 얕게 심는다.

범부채는 추위에 견디는 성질도 강하나 평균기온이 20°C 정도에서 가장 생육이 좋다. 물주기는 심은 다음 활착될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자주 해줘야 하지만 새 뿌리가 난 뒤부터는 거의 자연강우에 의존해도 되며 봄에 가뭄이 심할 때 한번씩 준다. 봄에 물관리를 잘 하면 새싹이 돋아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 라. 시비 및 병해증 방제

범부채는 다비성 식물이다. 밑거름으로서 10a당 퇴비 3,000kg, 닭똥 200kg, 복합비료 20kg을 넣고 잘 갈아 엎어서 뿌리만 묻힐 정도로 얕게 심는다. 웃거름으로 꽃 피기 전과 8월 하순경에 복합비료 10kg(10a당)을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려준다. 병해증은 거의 없지만 헷볕이 적고 과습하게 되면 뿌리썩음병이나 녹병이 올 수 있다. 녹병(錄炳)은 잎에 주로 발생하며 가루모양의 다갈색 반점은 형성한다. 6월 하순에 꽃대가 올라와 꽃이 본격적으로 피기 전에 살균제를 살포해주면 효과적이다.